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12.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극단주의 자료 공유한 19세 남성 검거
 - 11.29 英 경찰은 극단주의 관련 자료 6건을 공유하여 「대테러法」을 위반한 19세 남성을 지난 금요일 런던에서 체포하였다고 밝히며, 테러 관련 제보는 어느 것이든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
- 스웨덴, 코로나19 지원금 수령 기업가 150여명 극단주의 연계
 - 11.30 외신은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7만6천여개 회사에게 42억 달러(약 5조원)를 지원하였으나 이 중 기업인 150여명이 테러단체·급진이슬람·新나치주의 등 연계자 보도

미주

- 美,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몰 총격전 발생
 - 11.26 CNN은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의 대형 쇼핑몰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객들이 몰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, 10살 어린이 등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그 중 1명은 중태라고 발표
 - * 경찰은 '평소 알고 지내던 두 집단이 벌인 사건'이며 계획된 공격은 아니라는 입장
- 美, '콜롬비아 무장혁명군'(FARC)* 테러단체에서 제외
 - 12.1 美 국무부는 FARC를 테러단체에서 제외하고 同 조직에서 분파한 반정부조직 '라 세군다 마르케탈리아'와 '콜롬비아 무장혁명군-인민군(FARC-EP)'을 테러단체로 지정
 - * 지난 '64년에 설립된 콜롬비아 최대 반군조직이었으나 '00년대 들어 콜롬비아 정부의 공세 강화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'16년 정부와 평화협정 체결

아 · 태평양

- 호주, 新나치주의단체 '더 베이스' 테러단체 지정
 - 11.24 외신은 호주 정부가 新나치주의 단체 '더 베이스'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, 해당국 정보기관이 극우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세력화를 경계하며 수사력의 1/3을 同단체 경계에 할애중이라고 보도
 - * 「앤드루스」 호주 내무장관은 “폭력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”이라고 부연
- 외교부, 테러·납치 우려에 파키스탄 카라치 '코랑기' 지역 방문 자제 당부
 - 11.25 외교부는 최근 파키스탄 카라치內 우범지대인 코랑기(Korangi) 지역의 치안상황이 악화되면서 아시아인 대상 테러·납치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 자제 및 외출시 신변안전 유의 당부
 - * 11.15 카라치(교민 200여명 거주)에서 71세 한국인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

중 동

- 하마스, 英 테러단체 지정을 비난하며 즉각행동 선언
 - 11.24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(HAMAS)의 지도자 「이스마일 하니예」는 영국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'즉각대응'을 지시
 - * '즉각대응'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

아프리카

- 콩고, 난민캠프에서 코데코(CODECO) 민병대원 공격으로 22명 사망
 - 11.28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보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테러로 민간인 22명이 사망하였으며, 지역 적십자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'콩고발전협동조합(CODECO, 코데코)*' 민병대원의 소행이라고 비난
 - * CODECO(코데코) 대원들은 同 지역 난민 대상 반복적인 테러공격 감행

이스라엘, 하마스(HAMAS) 주도 연쇄 자살폭탄 테러

- '01.12.1~2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등지에서 '하마스(HAMAS)'가 주도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240여명의 사상자 발생
 - * '하마스'는 12.2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소행이라고 주장
- 12.1 22시경 예루살렘 시내 쇼핑가에서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자행한 자폭사건에 이어, 다음날 정오 무렵에도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 중심가 버스안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추가 발생
- 이스라엘 총리 「아리엘 샤론」은 '테러와의 전쟁'을 선포하고
 -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테러 지원단체로 지목하며, 미사일과 전폭기를 동원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단행하는 한편,
 - “(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) 적극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을 지속하겠다”고 강력 경고
 - * 이스라엘은 테러용의자로 하마스 대원 33명을 지목하고 팔레스타인측에 검거 요구
- 이에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마스 대원 17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-하마스간 內戰 직전까지 상황 고조
- 한편, 12.21 하마스의 對이스라엘 자살폭탄 공격 전면 중단 선언으로 '이스라엘-하마스-팔레스타인 자치정부'간의 긴장 상황은 일단락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- (활동수법) 對이스라엘 군·민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- (주요테러)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'12.11 텔아비브에서 PIJ조직원과 버스폭탄테러 자행, 29명 부상

